

2050년의 도서관상: 현재와 30년 전, 30년 후의 도서관 시스템

저자 하라다 다카시(原田隆史)
(도시사대학)
역자 대외협력위원회

1

시작하며

헤이세이 시대(1989-2019년)가 시작되면서 네트워크 시대의 막이 열렸다. 물론 이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1989년에 World Wide Web의 기본 구상이 공개되었으므로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헤이세이 시대는 온라인 목록, 오픈 액세스, 기관 리포지토리, 정보 리터러시 교육, 전자도서, 전자저널 등 도서관에서도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 30년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도 새로운 연호로 바뀌었는데 도서관은 과연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하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 온 것일까.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에 ‘디지털 콘텐츠 보급과 도서관’을 기고했는데¹⁾, 거기서 제시한 제안은 받아들여진 것일까. 앞으로 시작될 레이와 시대가 몇 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은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2

도서관시스템의 빛과 그림자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공공·대학·전문도서관을 불문하고 도서관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대규모 도서관용부터 소규모용까지 각종 도서관 패키지가 개발되어 많은 도서관에서 도서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시스템은 도서관 업무 전반에 걸쳐 큰 효과가 있었다. 특히 시스템 도입에 수반되는 작업 노동력 절감과 신속한 처리에 효과가 있었으며, 도서관 업무를 바꿨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의 민간 MARC 활용이나 학술정보센터(NACSIS) 이용을 통해 대학도서관의 목록 작성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 점은 도서관 정리 업무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1) 하라다 다카시.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과 도서관. 전문도서관. 2008, No.230, pp.1-6.

또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면에서도 기존에는 목록 카드를 통해서 자료를 검색하던 것이 온라인 목록을 사용하여 어디서든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게다가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가 가능해진 점이나,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된 점도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행동을 바꿀 정도로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도서관시스템 도입으로 대출·반납 신속화, 반납이 지연된 대출 데이터 추출, 자동 대출 장치 도입 등 도서관시스템이 가져온 혜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도서관시스템의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도서관시스템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도서관시스템 도입은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예약은 도서관 자료 이용을 증가시켰다. 지금은 많은 이용자가 예약 기능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²⁾.

그러나 예약된 도서가 서가에서 빠지면 장서 회전율이 떨어지게 된다. 물론 예약을 통해 전에는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서관을 찾을 가능성은 늘기도 했으므로 공적과 과실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료구입비가 줄어든 도서관에서 예약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용하는 사람의 만족도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별 기능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도서관시스템 도입이 도서관에 주는 공적과 과실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서관시스템의 의의를 설명할 때 문헌정보학 전문서적 등에서도 사람이 담당하던 단순 작업을 도서관시스템이 담당하고, 지금까지 단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인원을 새로운 서비스 전개에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하고 있다. 도서관시스템이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은 틀림없다. 하지만 노동력 절감 효과를 이용하여 도서관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의 MARC 구입이나 대학도서관의 NACSIS-CAT 참가 등을 통해 각 도서관에서 정리 업무 담당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여력을 살려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실제로는 그 여력을 새로운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마다 다른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여 표준적인 도서관 패키지를 커스

2) 각 공공 도서관에서의 조사에서도 도서관 잡지 예약을 알고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013년의 '무사시노 시립 도서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보고서(개요판)'에서는 조사 대상 중 예약·요청 인지도가 가장 높고(71.6%), 만족도 조사에서도 예약 기능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는 2.9%에 그쳤다. 이는 조사 항목 중 최저에 가깝다. <http://www.library.musashino.tokyo.jp/images/upload/anket-gaiyouH24.pdf> (참조 2019-3-31)

터 마이징하기 위한 비용에 투입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인원이나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사례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예산 삭감은 나쁜 일이 아니며,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 전개를 선행하지 않고 도서관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도서관시스템 발달 자체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즉 도서관시스템의 기능에 그만큼의 변화가 없다면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 도입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조달 비용이 일단 줄게 되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시스템 도입 당초에 이루어졌던 도서관별 커스터마이징을 할 여유도 없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도서관시스템 도입에서는 커스터마이징 요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표준 기능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서관 패키지의 표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각 도서관에서 충분히 만족할만한가이다. 안타깝게도 이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서관 패키지에 불만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³⁾⁴⁾. 불만족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서관시스템 이용자의 의견이 개발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 중에서도 큰 요인일 것이다. 시스템에 대한 불만족 해소를 담당하는 SE를 통해 개별 도서관의 요청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해결하는 부분은 표준 기능 개선에 좀처럼 반영되지 않는다. 많은 도서관의 공통적인 불만을 집약하여 모든 벤더에 대해 도서관 업계 전체적으로 개선안을 제안했어야 했다. 이런 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반성 포인트일 것이다.

또한 도서관시스템의 설계 구상 자체에 대해서도 향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도서관시스템은 지금까지 업무용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에 대응하여 도서관시스템 발주 시의 기존 사양서는 도서관시스템 이용자가 도서관 직원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도 고려하여 도서관시스템을 생각한다면, 도서관시스템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도서관 직원뿐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도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시스템을 선정할 때 이용자에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도서관 시스템 사양서를 설계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몇 군데의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의견도 참고하였을 것이며, 도서관 직원이 평소 이용자를 접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킨 것도 있을 것이다. 하

3) 가노 에이지(狩野英司), 요시다 다이스케(吉田大祐). 도서관 시스템을 둘러싼 과제와 향후 전망 ~'도서관 시스템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RI 소보(所報). 2012, No.55, pp.208-226.

4) 하세가와 도요히로(長谷川豊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대학 도서관 업무 전산화 구조 규명. 2007년도 미타 도서관·정보학회 연구대회 예고(豫稿). http://www.msliis.jp/am2006yoko/05_hasega-wa.pdf(참조 2019-03-25)

지만 많은 도서관시스템 조달에 관여해 온 필자조차 이용자를 중시한 개념으로 작성된 사양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도서관이 시스템화되어 온라인 목록이 서비스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특별한 시설이었던 도서관이 상용 서비스와 같은 입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핵심인 도서관시스템 선정시에 중심이 도서관 직원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3

2050년의 도서관상

3.1 대출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평가

일본 도서관에 있어서 1963년의 '중소도시의 공공도서관 운영'(중소 보고서)⁵⁾ 및 1970년의 '시민의 도서관'⁶⁾은 상당히 큰 의미이며,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전국적 서비스, 아동 서비스, 대출 중심 서비스를 활동 이념으로 삼은 방침은 고도성장 시대의 도서관 평가와 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전국 각지에서 공립도서관이 건설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극적인 성공은 부산물도 낳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도서를 빌려주는 시설', '도서관은 아동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심은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강렬한 성공 경험이 일본의 도서관 관계자가 도서관의 새로운 활동을 제안하는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중소 보고서 및 시민의 도서관이 간행되고 약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서관에 대한 일본의 이미지는 딱딱하게 굳어 있다. 아직 굳지 않은 이미지에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딱딱하게 굳은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는 강한 임팩트가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 지금의 도서관계가 이러한 제안 제시를 할 수 있을까.

자료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더라도 도서관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자료 제공을 중심으로 한다면 30년 후에는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미래만 상상된다고 하면 과연 일까.

5) 일본도서관협회. 중소도시의 공공 도서관 운영. 일본도서관협회, 1963, p217.

6) 일본도서관협회. 시민의 도서관. 일본도서관협회, 1970, p151.

3.2 전자도서와 도서관

지금 대학·기업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학술잡지는 가능한 전자저널을 이용한다. 이런 상황이 전자도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물론 전자도서와 전자저널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직 전자도서가 보급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자도서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전자도서가 종이 서적을 대체하고 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⁷⁾.

하지만 전자도서는 기술적으로 도서관과 궁합이 매우 좋은 미디어이다. 전자 서적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접근권에 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일을 다른 디바이스에 복사한 경우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만, DRM 설정에 따라서는 2~3 주 후에 읽을 수 없게 하는 등의 제어도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도서관의 대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렇다면 전자저널과 마찬가지로 출판사의 서버에 축적된 서적 본체를 이용자가 직접 이용한다는 모델은 충분히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출판 디지털 기구의 우에무라 야시오(植村八潮) 전 회장이 말한 것처럼 출판사가 전자도서를 출판하고 도서관은 그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만 구입하는 모델⁸⁾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을 때 도서관은 어떻게 바뀔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도서관에 대한 개개인의 이미지이며 도서관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도서관의 어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지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서적을 빌려줄 뿐이라는 가치밖에 인정할 수 없다면 출판사나 전자도서 출판 사이트가 직접 이용자에게 도서를 판매하는 체제가 갖춰지면 도서관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람들은 전자도서보다 종이 도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강하며, 전자도서가 보급되는 것은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전자도서 가격이 종이 도서보다 싸게 설정됨으로써 급속히 보급된 것처럼 압도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지는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에 관계없이 급속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회적, 정치적인 의미로 즉시 현실적인 검토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적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생각한다면 금전적인 의미로는 공공도서관을 폐지하는 대신 출판사가 모든 전자도서를 무상 공개한다는

7) 총무성 '2016년도 정보통신백서'에 의하면 미국의 전자도서 보급률은 51.9%로 높은 편이었지만, 2015년에 미국 대형 출판사가 가격을 인상한 영향도 있어 그 이후 미국의 전자도서 매출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http://www.sankeibiz.jp/macro/news/180104/mcb1801040500002-n1.htm>(참조 2019-03-25)

8) 우에무라 야시오. 전자 출판물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동향에 대하여. 전국 공공 도서관 협의회 연구 집회 강연 기록. 전국 공공 도서관 협의회 뉴스레터 별책. 2012년 10월 1일. 2012.

것도 황당무계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⁹⁾.

이 아이디어는 현시점에서는 탁상공론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전자기기 소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0 대 이상에서의 전자기기 이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¹⁰⁾. 현재 40 대인 사람들이 70 대가 되는 30 년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기기에 대해 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할 것이다. 또한 전자적 미디어에는 정보 기술 진보에 따라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음악 분야에서 레코드나 CD가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넷 배포로 바뀌고, 동전이나 지폐가 전자 화폐로 변화해 나가는 가운데 도서관 물리적 매체를 통해 제공돼 나간다고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4

도서관시스템은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

4.1 도서관시스템과 노동력 절감

지금의 도서관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름길도 도서관시스템에 있다고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큰 이유는 도서관에서 이슈를 만들어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현시점에서는 시스템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강한 요청이 있으면 시스템화 외에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에 대출 외의 새로운 서비스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용자들이 그런 것을 요청하겠는가.

이전 MARC 나 NACSIS 도입에 의해 창출된 여력을 사람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변화로 이어 나가는데 실패한 도서관 업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해 받는 것

9) 예를 들면 2018년의 서적 매출은 약 6,900억 엔 전후이다. 서적 매출 중 유통 경비가 30%, 인쇄 및 기타 경비가 10%라고 하면, 전부 전자도서로 구입한 경우의 경비는 대략 계산하여 4,830억 엔이 된다. 이에 대해 공공도서관에 투입되는 경비를 생각해 보자. 일본도서관협회 조사에 따르면 경비(인건비 제외) 및 자료비 합계가 약 1,969억엔이다. 또 2018년 공공도서관 직원 수는 전임 직원이 10,046명, 겸임 직원이 1,140명, 비상근 직원 9,913명, 임시 직원 7,173명이다. 또한, 위탁·파견 직원이 13,058명이다. 인건비 산출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사회보장 및 연금 기타를 포함하여 전임 직원이 800만 엔, 겸임·비상근·임시 직원이 400만 엔, 위탁·파견 직원이 200만 엔으로 하여 계산하면, 합계 1,612억 엔이 된다. 경비, 자료비 및 인건비 합계가 3,590억엔이 된다. 또 도서관 건축 비용 및 학교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일본 도서 구입비 등도 포함하면 금액적인 면만 보면 도서관을 폐지하고 전자도서를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도 황당무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10) 하라다 다카시, 사토 쇼(佐藤翔). 지하철 안의 정보 미디어 이용. 2018년도 일본 도서관 정보 학회 춘계 연구 집회 발표 논문집. P.115-118. 2018.

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도서관시스템을 진화시키지 못한다는 선택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IC 태그를 도입하여 자동 대출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대출담당직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해도, 아직 효과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면 그 노동력을 절감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시스템화로 여력을 창출하고 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30년 후에는 현재의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가 필요해진 것이다.

4.2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란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향후 30년 사이에 현시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지만, 현 상황에서 상상하자면, 도서관시스템은 '도서관에 만 있는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그 중추가 될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원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진화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네트워크가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정보 입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일본 사회가 풍요로워져 사람들이 도서를 구입하기도 쉬워졌다. 그 결과로 도서관이 도서나 잡지를 제공하는 행위가 사회에 주는 의미는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을까. 도서관 밖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존재 의의가 시대와 함께 희미해진 것이다.

중소 보고서가 정리한 시기와 비교하여 사람들이 서적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장벽은 낮아지고, 중고 서점 출현 및 인터넷의 발달 등에 따라 도서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 외에도 다양해지고 있다. 무료이지만 대출이나 반납하러 갈 때 드는 시간이나 노력을 생각하면 예전과 비교하여 도서관이 정보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도서관 이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가치가 더 높으면 누가 도서관에 기대를 하겠는가. 향후 네트워크 시대에도 도서관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독자적인 정보 제공이 필수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Google은 초기 단계에서 랭킹에 페이지랭크라는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는 링크가 많은 페이지일수록 가치가 높다는 이른바 인용 분석 개념을 Web 페이지에 응용한 것이기도 했다¹¹⁾. 이러한 개념을 비롯하여 정

11) 이러한 미디어가 도서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건, 도서관 정보학자인 필자에게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

보원과 정보원을 연결하는 방법 및 평가 지표 등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는 실제로 많다. 참고봉사 활동과 같이 각종 정보원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도서관의 커다란 재산이며, 정보 리터러시 교육 등으로 축적된 노하우나 기술은 학교나 생애 학습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와 동시에 이에 메타데이터를 부여하여 제공하는 것도 도서관이 사회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부분일 것이다. 또한 도서관 이용에 대한 원시 데이터(law data)를 개인 정보를 제거하고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그야말로 빅데이터 분석시대의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일 것이다²⁾.

이러한 정보를 도서관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는지도 중요한 테마이다. 방문하여 도서관 직원에게 물어보아야만 하는 정보는 이미 이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또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되지 않는다. 도서 자료 목록 이외의 정보를 얼마만큼의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전파해 왔을까. 정보를 공개해 온 도서관 중에서도 SEO(검색 엔진 최적화)에 진지하게 임해 온 곳이 얼마나 있을까.

표준화도 중요하다. 대량 데이터를 이용할 때 지금은 정형 데이터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용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데이터 형식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라이선스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고, 나아가 API가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국립국회도서관 검색 이용의 과반수는 API를 경유하고 있다. 필자가 본지에서 Web API의 중요성을 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Web API는 얼마나 구현되었을까.

본 논문에서는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로 시스템을 예로 들었지만, 새로운 서비스 전개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도서관마다 따라 다를 것이다. 도서관에서의 이용 상황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로 창출된 것이라면 어떤 새로운 서비스라도 상관없다. 지금이야말로 도서관시스템 도입에 따라 생기는 여력을 각 도서관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대출 등의 특정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는 미래상으로 연결하는 장기적 전망과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당신의 도서관의 세일즈 포인트는 무엇일까?

12) 지금까지 대출 로그와 같은 도서관 이용 정보는 특히 공공 도서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파기되어 왔으며,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각 이용 데이터도 없이 정밀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향후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때, BI(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에 포함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또, 이러한 개별 데이터와 BI 도구 이용은 도서관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지 않고 도서관 직원이 직접 통계 처리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등, 시스템 비용 절감에도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도서관이라는 곳에서의 동선을 분석하는 등 인터넷 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세밀한 정보 제공 등을 하는 길도 있을 것이다.

2050년의 도서관상(像) -현재와 30년 전, 30년 후의 도서관 시스템-

하라다 다카시(도시샤 대학)

웹이 탄생하고 30년 동안 웹은 사회 전체를 크게 바꾸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발달해 온 도서관시스템은 지금까지 도서관의 노동력 절감에는 크게 기여해 왔지만, 사회나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정도의 임팩트를 주는 부분에는 거의 기여한 바가 없다. 30년 후의 도서관을 생각할 때 도서관시스템은 단기적인 도서관 업무 노동력 절감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도서관 전체를 발전시키는 열쇠가 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이 지금 하는 자료 제공 기능 이외에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도서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긴 여력을 도서관의 미래로 연결하는 장기적인 전망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일본전문도서관협회의 학술지 「전문도서관」 2019년 5월호 (통권 295호) pp.31~36에 실린 글을 저자의 허락하에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